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하 5장 14절] 나이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얼음 깨기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교회행사

한국어 외에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나요? 만약 외국어를 배운다면, 어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외국어를 배워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9월

1일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1일 어와나 시작 1,8일 이끄미 1기 교육 22일 진공첫 3기 시작

10월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20일 2025 더비기닝 선교학교 26일 교사 컨퍼런스

경배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소식

1. 교사 모집

다음 세대들을 맡아서 양육할 교사가 부족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세요. 문의 : 김승호 목사 (010-9744-4177)

2. 더 비기닝 선교 학교

모집기간: 10월 13일까지(신청서 기재 후 제출, 혹은 QR코드 촬영 후 작성)

대상: 더온누리교회 성도 (선착순 30명)

회비: 100,000워

문의: 이홍기 목사 (010-5494-1413)

3. 더 말씀으로 가을 사경회 (김형국 목사 초청)

10월 13일 (주일 낮예배), 14-16일 매일 밤 7:30

선교

[김영진 선교사]

라오스

- 1. 라오스 성경 연구원을 건축하는데 전적으로 은혜 주시기를
- 2. 부흥캠프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 3. 제자들이 오지 마을 선교할 때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한문장 큰 울림

이것저것을 채워 달라고 밤낮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복입니다.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그에게 묶이지 않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 조정민 목사 베이직 교회 담임 '뜻 밖의 축복' 중에서

제목: 왕들에게서 배우는 교훈 본문: 열왕기하 15장 1절-22절

[열왕기하 15:4]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라(웃시야)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52년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2세에 이어서, 스가라(6개월), 살룸(1개월), 므나헴 (10년), 브가히야(2년) 등의 왕으로 4명이 교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악행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앗수르를 통해 심판하시고, 남유다 공동체에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십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4명의 왕의 공통점을 같이 생각해보면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_포기할 수 없던 하나 - 산당과 여로보암의 길

본문에 나타난 아사랴와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의 모습에 우리는 매우 유사한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아사랴 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산당**입니다.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을 뜻하며 가나안 사람이 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이후, 이 산당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사랴 (남유다)

[왕하 15:4] 오직 <u>산당</u>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북이스라엘)

[왕하 15:9]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u>여로보암의</u>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산당'과 '여로보암의 죄'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욕망, 편리,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 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u>하나님을 무시하고</u> "내 맘대로"하려는 것이 곧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눔] 내 일상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고 있나요?

2 아사랴의 교만

[대하 26:16]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약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 26장에는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였지요. 율법으로 정해진 직분에 있는 자들만 행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그것을 행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왕하 15: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 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 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신앙에 있어 온전히 자립하지 못했던 아사랴는 결국 말씀을 무시하며, 산당을 방치합니다. 아사랴의 '자기 중심성'은 마침내 제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방 나라와 같은 타락으로 이끌게 됩니다.

3_나의 산당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후의 문제, 성정체성에 대한 논란, 공동체 안의 어려움 등의 이면에는 '내 맘대로 할거야'라는 나의 산당, 곧 자기 중심성 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u>"하나님, 내 안의 산당을 깨닫게 하시며,</u>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를 같이 바라며 나아가시게요.

[나눔] 내 삶의 산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산당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눔	[왕들에게서 배우는 교훈 / 열왕기하 15:1~22] 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포기할 수 없던 하나	주님, 제 마음 속에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나의 욕망, 편리, 세상적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아사라의 교만	말씀을 떠난 즉시 교만으로 무너짐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나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